

# “확진자 다녀갔다니 두려워… 공포의 쇼핑” 적막강산

## Q 르포 | 코로나19 확산에 초토화된 유통가 가보니

“코로나 전에는 고객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백화점은 비교적 쇼핑을 하는 고객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와 면세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뚝 끊겼다. 음식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손님이 줄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평소 주말보다는 다소 고객이 줄어든 모습이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쇼핑하는 소비자들은 있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1층 화장품 매장 직원은 생각보다는 많은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아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오후 2시경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 돼 지하 1층 식품관을 임시 휴점했다. 전날에는 오후 8시에 영업을 앞당겨 종료했으며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식품관 외 타구역 미방문, 확진자 방문과는 별도로 선행

확진자 방문한 백화점 발길 뚝 마스크 쓴 고객만 간간이 보여

면세점·대형마트는 더 한산 시민 “외식하기 꺼려져” 우려 강남 주말에도 유통인구 줄어 웨이팅하던 맛집도 파리만 행

된 소독 등 사전 방역 활동과 관련해 현장조사팀과 협의를 거쳐 방문 구역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식품관을 제외한 다른 구역은 정상영업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나왔다는 김모(30)씨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온 김에 지하 식품관에서 식사도 하고 가려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해 놀랐다”며 “서둘러 쇼핑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면세점은 직원들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텅 빈 면세점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면세점 매장의 한 직원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많이 줄었다”며



23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세계면세점.

/김민지 기자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마트 역시 한산한 모습으로 평소같은 북적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형마트는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많은 곳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줄을 서야 할 계산대는 한산했다. 22일 찾은 강남구 서초동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임지영(29)씨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장을 보는데 급하게

필요한 식재료가 있어 마트를 찾았다”며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꺼려지다보니 사람들도 마트방문을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현대백화점은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전 지점 평균 10%대 매출이 줄었다. 압구정점은 전년 동기보

다 8~9%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백화점은 설 연휴 이후 첫 주말 매출이 전년 대비 12.4% 줄었다.

롯데백화점은 전 지점 평균 20% 매출이 떨어졌다. 특히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은 3일간 임시 휴업을 해 30%가량 급락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대략 매출 6~7%가 하락했다.

강남대로 인근은 유통인구가 많은 특성 덕분인지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4)씨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 걱정”이라며 “원래는 웨이팅하는 고객들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예전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소재 회사에서 재직 중인 김모(29)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는 줄 알고 방심했었는데 퇴근길에 자주 이용하던 광고 이마트도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니 무섭고 경각심이 생긴다”며 “강남도 오랜만에 왔는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외식하기도 꺼려지고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 “매출최악, 손님보다 직원 더 많아… 신천지 밉지만, 정부는 뭘 하는 지”

## Q 르포 | ‘발길 뚝’ 뷰티·패션 매장 가보니

“보시다시피 고객보다 직원이 더 많아요”(A 화장품 판매장 명동점 점장)

“신천지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어요. 정부는 5조 원을 어디에다 쓰는 건지”(개봉동 B 헤어 스튜디오 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패션·뷰티 유통업계가 매출 하락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패션·뷰티 아이템이 사치재인 만큼 소비자의 대부분이 집 밖 외출을 삼가면서 최소한의 제품만을 소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패션뷰티업계 오프라인 매출 하락이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명동 거리 판촉 직원 한숨 소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변화가는 오전 시간대임을 고려하더라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평소 북적이던 화장품 판매장 거리는 마스크를 낀 채 영업 활동하는 직원들만 눈에 들어왔다. 평소 마스크 팩을 1장만 나눠줬다면 2장은 기본, 3장까지 나눠주며 판촉을 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빠르게 직원을 스쳐 지나갔다.

A 화장품 판매장 명동점 점장은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매출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명동은 주 고객이 중국인 관광객인데,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뒤로 중국 손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보시다시피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옷가게도 마찬가지였다. C 의류 브랜

드 화장품 테스트 대신 테스트지 대체 방역하고 판촉물도 3배 늘려봤지만 구매는 커녕 구경도 안해 매출 절망

웃은 피팅 안하고 구매는 온라인서 오프라인 매장 “생계 걱정” 입 모아

드 명동점 점장은 “구경하는 손님이 현저히 줄었다. 보통은 매장을 구경하다가 옷을 입어본 뒤 계획보다 추가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기본 아이템의 사이즈만 확인하고 빠르게 매장을 나간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23번째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은 뒤 3일간 임시 휴점한 바 있다.

### ◆일부 지역은 생존 위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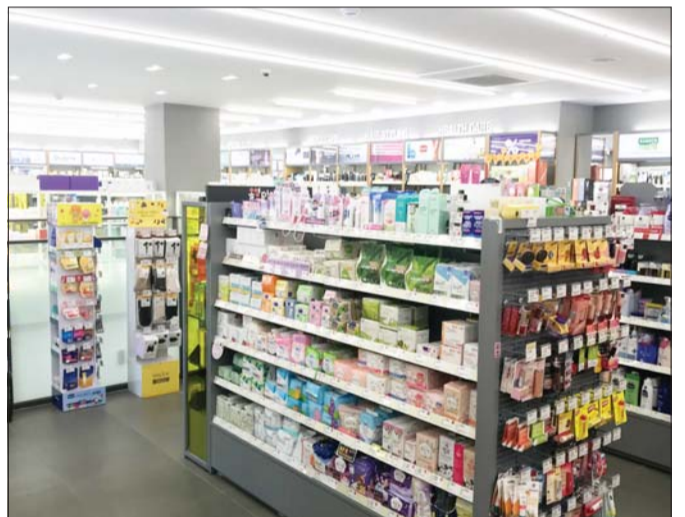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개봉역 인근 신천지 G 교회에는 폐쇄됐다는 안내 현수막과 손세정제가 설치돼 있었다.

G교회 상가 같은 층에 있는 B 헤어 스튜디오는 영업 중이었으나 텅 비어 있었다.

B 헤어 스튜디오 사장은 “손님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제로(0원)이죠. 평소 오전 10시에서 11시면 파마하는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방역을 끝냈지만 확진자 나온 상가에 누가 오겠어. 자기 건강한 거 맞냐고 확인하는 전화만 잔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개봉동에 위치한 B 헤어스튜디오가 텅 비어있다.



24일 서울에 위치한 드러그스토어 매장에 고객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조효정 기자

뜩 와”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안 그래도 남편은 쉬고 나 혼자 버는데 생계가 걱정이야”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D 코스메틱 브랜드 개봉점 점장은 “코로나19가 발생 초기에는 이 동네 매출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요. 완전 위기죠”라며 “확진자가 나온 뒤 평소 매출의 10분의 2도 나오지 않아요”라고 털어놨다.

E 코스메틱 브랜드 개봉점 점장은 “본사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손님도 안전하니깐요.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고객들은 들어오는 게 더 꺼려진다고 하네요”라며 씩씩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테스터도 하고 구경을 해야 매출이 오르는데, 아예 매장 자체를 들어오질 않아요. 얼굴에 직접 테스트 하지 않고 테스트지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적고, 이번 주는 평소 매출의 10분의

1 정도네요”라고 말했다.

### ◆패션·뷰티 소비자 온라인으로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패션·뷰티 회사의 타격은 크지 않다.

브리티 홍보팀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이 주가 되다 보니 매출의 큰 변화는 따로 없다. 특히 중국 쪽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프라인 매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패션뷰티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F 코스메틱 브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단기간의 매출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코스메틱 업계 오프라인 매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G 패션 브랜드 홍보팀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으로 일부 이동하기는 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우리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자사 브랜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다른 온라인 경쟁업체가 많으므로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전반적인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방안 시급해

B 헤어 스튜디오 사장은 “신천지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어”라며 화를 냈다. 그는 “나라에서 5조 원을 풀었다. 돈이 부족하다고는 들었지만, 나 같은 사람도 도와주면 좋겠어. 대기업은 버티더라도 하지, 자영업자는 대책이 없거든”이라며 호소했다.

개봉동에 위치한 H 의류점 점장은 “방역했다,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도 불안한걸요. 대기업은 영업하고 있다고 기사라도 나오지, 우리같이 작은 옷가게는 영업하는지도 몰라. 나라에서 금전적 지원은 못 해도 안전하다고 홍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